

건강한 공동체와 목회상담학: 갈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이 희 철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요약】

갈등은 공동체가 회피하여야 할 사회적 문제이기 보기보다는 공동체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실존적 현실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 논문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구성원이 어떻게 협력하고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다름’은 사회적 현실이고 다름 때문에 갈등이라는 실존적 경험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갈등은 악(惡)이 아니라 실존적 현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 논문은 종교집단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공동체가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강화와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사회심리학적 연구이다. 상호간의 돌봄과 유대강화가 있는 사회적 공동체는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그 갈등 속에서 상호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관계를 유지한다.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감정이 억압되거나 왜곡되게 해석되기보다는 상호적으로 소통이 된다. 감정을 개인이 느끼는 사적인 소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동체가 개인의 상태를 알게 하고 개인이 타인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는 사회적 기능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노, 수치심, 자신감 등의 감정은 개인이 느끼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갈등하는 공동체가 개인이나 집단이 처해진 상태를 알아차리고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는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갈등 속에서 감정이 소통되고 상호간에 책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목회상담학자 래리 켄 그래함의 체계적 사고에 의지하여 ‘대화’, ‘협력’, ‘애도’, 그리고 ‘기억’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행동은 개별적 행동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다. 공동체 안에서 이 네 가지 행동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상처받은 개인과 집단이 소외되기보다는 상호간에 유대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

주제어: 갈등, 대화, 협력, 애도, 기억, 공동체, 사회심리학

* 본 논문은 2018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2018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기초하여 수정보완된 논문임.

I. 서론

감정이해력은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이해력은 사회적응능력과 비례하여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감정이해력이 높으면 친구나 동료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¹⁾ 감정이해력이 높으면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한다.²⁾ 감정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우울증, 조현병, 다중인격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낮다고 한다.³⁾ 그러므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사회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감정은 사회적 현실인 갈등상황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까?

1호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신도림역에서 까치산역행 2호선을 갈아타려고 내려가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물결같이 내려가고 있었다. 물결에 휩쓸려있으면 못 볼 수 있는 사실은 올라오는 반대편계단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계단으로 내려가도 되지만 그렇게 못했다. 사람의 물결을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아서이다. 물결에 휩쓸려있으면 ‘다름’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혹이나 물결을 따라가다가 ‘다름’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기지만 다름과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지금이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다름’을 알아채는 순간 갈등은 생길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5·18민주항쟁, 제주 4·3사건, 세월호사건, 촛불집회, 미투운동 등이 ‘다름’을 알아차리게 하는 인간실존의 경험들이다.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불당혜손모금활동 벌인 손원영 교수 파면, 종교인과세, 명성교회 세습논란, 퀘어축제와 종교단체, 등은 종교적으로 ‘다름’을 알아차리게 하는 인간실존의 경험들이다. 이 경험들로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다름을 알게 되었다. 다름을 알게 되면서 갈등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자체가 악(惡)은 아니다. 다름 때문에 갈등은 생길 수는 있지만, 갈등 자체가 악(惡)은 아니다.

갈등은 악(惡)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필자는

1) Susanne Denham, Marcia McKinley, Elizabeth Couchoud, and Robert Holt,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1990), pp. 1145-1152.

2) Caroll Izard, Sarah Fine, David Schultz, Allison Mostow, Brian Ackerman, and Eric Youngstrom, "Emotion knowledge as a predictor of social behavior and academic competence in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science*, 12(2001), pp. 18-23.

3) Dante Cicchetti, Brian Ackerman, Caroll Izard,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995), pp. 1-10.

본 논문을 작성한다. 본 논문은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지배적으로 경험되는 자신감, 수치심, 그리고 소외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이며 갈등 속에서 경험되는 자신감과 수치심 같은 감정이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사회 심리적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에 기초하여 논하여졌다. 첫째, 감정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사적이고 내재적인 감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사이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상호간의 필요를 소통하는 기능을 한다. 감정은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개인 자신에게 소통한다. 그뿐 아니라 감정은 타인에게 자신의 상태와 필요를 소통하고 타인의 상태와 필요에 관심을 갖고 알아차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사회적 집단의 관계유형은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속감과 책임감의 정도에 근거하여 구별될 수 있다.⁴⁾ 사회적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관계는 집단의 역기능성의 결과가 아니라 소속감과 책임감의 정도에 근거한 집단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표현이다. 이 두 가설은 사회적 집단 안에서 경험되는 갈등관계는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감정이 하는 역할의 이해가 갈등관계에 대한 함축적이고 건설적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가설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자신감(pride)과 수치심(shame) 같은 감정이 사회적 집단에서 자주 경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갈등하는 사회적 집단 안에서 소외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으로서 감정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가? 감정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감정은 느끼는 개인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신체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을 느끼는 개인만이 그 감정을 인지할 수 있고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특정의 감정을 느끼는 개인이 그 감정을 소유하고 있기에 책임은 느끼고 있는 그 개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감정이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4) 사회적 집단은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사회적 집단의 개념정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사회적이고 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의 정서이론을 비평적으로 논하면서 존 듀이(John Dewey)는 ‘우울감’(melancholy)같은 병리적 감정(pathological emotion)은 대상이 없이 혼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내용은 이전에 어떤 대상과 경험된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무리 병리적이어도 대상이 없이 경험되지는 않는다고 듀이는 주장한다.⁵⁾ 듀이의 주장은 감정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임을 깨닫게 한다. 듀이의 주장에서 보듯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감정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감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성되고, 재구성되고 그 상징적 체계에 어울리게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생일잔치는 기쁨, 즐거움, 반가움, 흥분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상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생일잔치에서는 나도 모르게 웃음과 기쁨 표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특정의 감정들은 상징적 체계에 의해서 표현되는 문화적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감정은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생성되거나 재구성되면서 사람들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한다.

박형신과 정수남은 감정연구의 세 가지 흐름(치료요법적 접근방식, 구성주의적 접근방식, 거시사회학적 접근방식)을 비교설명하면서 치료요법적 접근방식의 특징을 비평적으로 지적한다. 첫째 특징은 감정 자체보다는 감정적 결함에 주목하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적으로 취약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성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을 병리화하여 치료적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정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질병의 원인이라고 여긴다. 세 번째 특징은 감정을 개인의 심리내적의 영역으로 환원시킴으로서 개인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환원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개인의 감정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생긴다. 네 번째 특징은 과거지향성이다. 현재 경험되는 감정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 지난 과거의 행동에서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독립변수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인간의 삶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감정결정론에 빠지게 되고 개인은 감정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감정 관리와 자기개발에 열심을 내는 경향이 생긴다.⁶⁾ 이러한 특징이 상담과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치료분야에서는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감정을 병리화하여 치료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감정조절훈련을 하지는 않는가? 감정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감정을 결정하여 인간관계속에서 표현하지 않도록 교육하지는 않는가? 분노를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감

5) John Dewey, "The theory of emotion: (1) emotional attitudes." *The Psychological Review*, 1, no.6 (1894), p. 562.

6) 박형신,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파주: 한길사, 2015), 36-40쪽.

정으로 결정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러한 특징의 일반적인 예로 감정과 폭력을 필연적 관계로 여긴다.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분노는 반드시 동반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분노나 피해자의 분노를 구분하지 않고 분노를 ‘부적절한 감정’ 또는 ‘치유되어야 할 감정’으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수치심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성폭력을 당하면 분노뿐 아니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치심은 성폭력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여서 성폭력에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부적절한 감정’이라고 치부하곤 한다. 그러나 수치심은 성폭력과 필연적 관계 속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성폭력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치심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⁷⁾ 다시 말하면 수치심은 성폭력과 동반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성폭력자체가 수치심을 유발하기보다는 성폭력의 경험을 숨겨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나 사회적 담론 때문에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수치심 같은 감정은 폭력의 결과이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실이고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게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감정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최초의 신호체계이다.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몸짓(얼굴 표정, 손짓, 발짓 등)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은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체계이다. 소위 말하는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 중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차적이고 사소한 감정이 있을 수 없다. 모두 필수적인 감정이다. 관계를 만드는데 모든 감정은 필요하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관계를 수정하여 재구성하거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모든 감정은 필수적이다. 감정은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체계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코넬 웨스트(Cornel West)는 말하기를 폭력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는 무기력함에 대한 반응이고 희망이 상실되었고 의미가 사라졌다는 신호이다.⁸⁾ 감정으로서는 분노는 유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빨간 신호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상담사와 교육가를 포함한 돌봄 전문가는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돌봄 전문가는 분노에 대한 즉각적 대응보다는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분노의 대상과의 유대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7) Patti Feuereisen and Corline Pincus, *Invisible Girls The Truth About Sexual Abuse*, 이배근, 문영희 옮김, 『인비저블 걸: 성적학대에 관한 진실』 (서울: 홍익재, 2006), p. 82.

8) Cornel West, “Nihilism in Black America” in *Race Matters* (Boston: Beacon Press, 1993)

III. 소외의 신호이자 예방으로서 자신감과 수치심

갈등이 악(惡)은 아니다. 갈등은 다름에 대한 인식에서 초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악(惡)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심리학자 토마스 쉘프(Thomas Scheff)와 수잔 레칭거(Suzanne Retzinger)에 의하면 갈등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롭게 하는데 소외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⁹⁾ 서두에서 가설로서 언급하였듯이 감정은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소통한다. 감정은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알려주는 신호기능을 한다. 감정이 신호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신호기능은 상태의 판단을 전제한다. 필자는 모든 감정은 판단 또는 평가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은 마샤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주장에 의지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감정은 대상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 모든 감정은 대상을 사스럽게 여기지 않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소한 경멸에 분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찮은 것의 상실에 애도하지는 않는다... 친구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그 친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알려준다. 겉모습에 대한 모욕을 당할 때 느끼는 분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¹⁰⁾

위에서 누스바움이 주장하듯이 모든 감정은 경험과 대상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게 한다. 감정이 연결되는 모든 대상은 중요하다는 점을 누스바움은 상기시킨다. 감정이 출현하는 모든 관계는 중요하다는 점을 누스바움은 강조한다. 위에서 누스바움이 주장하듯이 모든 감정은 상태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를 한다. 그러므로 감정은 사회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은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기능을 한다. 갈등의 관계 속에 경험될 수 있는 수치심, 자신감, 분노 등의 감정들은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신호한다. 갈등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생긴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난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난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

9) Thomas Scheff and Suzanne Retzinger, *Emotions and Violence* (Lincoln, NE: iUniverse, 2001), p. 167.

10) Martha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Law*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 40.

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름을 알아차리면서 갈등은 일어난다.

다름의 현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경험되는 감정은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그 상태를 알려준다. 수치심은 술자리에서 허락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는 직속상사에게 화를 낼 때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느냐는 동료들의 시선에 눈치를 보면서 ‘작은 일’(?)에 화를 내는 자신이 부끄러워진 상태를 알려준다. 작은 일에 분노하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은 당사자가 속한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준다. 감정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인지, 억압적인 관계인지를 알아보게 한다.

누스바움의 주장에 의지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작가 권정생의 글을 분석하면 감정은 관계하는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갈등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신호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도모꼬는 아홉 살
나는 여덟 살
이학년인 도모꼬가 일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꼬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데서
도모꼬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오십 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꼬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¹¹⁾

이 글 안에는 갈등이 담겨져 있다. 갈등은 내적인 갈등인 듯 하지만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도모꼬와 권정생 그리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참여하는 관계에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다름’에서 갈등은 시작되었다. 권정생의 생김새는 도모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달랐다. 권정생은 자신의 생김새가 도모꼬의 표현 속에 나타난 ‘생

11) 권정생, 「도모꼬: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2」,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 집』(파주: 보리, 2010), 25쪽.

김새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다르다는 낙인을 받았다. '다름'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가 갈린다”는 글 표현에는 분노가 담겨있다. 분노는 50년이 지난 현재 권정생과 도모꼬의 관계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아직도 화해가 되지 않은 관계를 알려준다. 또한 분노는 도모꼬가 권정생에게 중요한 타인임을 알려준다. 중요한 타인이 아니면 분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0년이나 지나서 도모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치심을 알아차려주는 경험이 없어서 권정생은 오랫동안 얼굴이 못생겼다는 외부적 판단에 의해서 못생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며 못생김의 탓을 자신에게로 하며 수치심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수치심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을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수치심을 느낄 때 자동적으로 숨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의 경험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므로 숨고 싶어지는 것이다. 권정생은 오랫동안 수치심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에 자신의 수치심을 가볍게 여기는 경험이 지속되면서 분노가 생겼을 것이다. 권정생이 느끼는 수치심은 생김새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에 의존하는 관계를 알아차리게 한다. 권정생이 느끼는 분노는 사회가 생김새로 인간됨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회적 기준 때문에 한 인간이 무시되고 소외되어서 느끼는 수치심을 알아차려주지 않는 사회적 현실에 근거한다.

토마스 셰프(Thomas Scheff)와 수잔 레칭거(Retzinger)에 의하면 갈등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중에 자신감(pride)과 수치심(shame)이 중요하게 두드러진다. 자신감과 수치심은 “유대감과 협력” 또는 “분열과 소외”에 열쇠가 될 수 있다. 셰프와 레칭거에 의하면 자신감은 사람들과 집단속에 연합과 일치를 신호하고 발생시킨다. 물론 타인에게 민감함이 없는 사적인 자신감은 소외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자신감을 공유한다면 그 집단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에서 반대 팀을 이기고 승리를 하면 팀 구성원들은 자신감을 공유하고 연합과 일치가 더욱 강하여질 수 있다. 반면에 수치심은 일치의 부족과 소외를 신호한다. 지나친 수치심은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하여 상대를 향한 보복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2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를 주면서 구석에 몰아넣기보다는 국가재건을 위한 원조를 했다. 수치심은 그 집단 안에서 소외가 발생하고 있음을 신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치심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¹²⁾ 가족 안에서 수치심은 한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갈등의 미시적 현상(눈치, 소외, 스파) 속에 담겨진 대표적 감정

12) Thomas Scheff and Suzanne Retzinger, 앞의 책, p. 168.

으로서 수치심은 소외의 신호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적절하게 알아차려질 때 수치심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사용된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수치심을 알아차려준 사건이다. 여성들이 억압적인 사회에서 부당하게 느꼈던 수치심을 알아차려준 사건이다. 억압된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거야”라고 생각하게 사회적으로 억압되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로서 여성은 지배세력들은 ‘사소한 일’로 여기는 사건에 예민하게 분노하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사회적으로 사소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분노하면 ‘이상한 사람’, ‘사회물정을 모르는 사람’ 또는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취급받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은 깊어져간다. 서지현 검사는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동료에게 듣고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방송에 나와서 그녀는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해줌으로 피해자들의 삶속에 오랫동안 감추어진 수치심을 읽어주었다. 그러므로 서 수치심은 개인의 사적 감정으로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회적 감정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감정으로서는 자신감과 수치심은 갈등하는 집단이 “협력과 유대감”을 만들게 하거나 “분열과 소외”를 조장하게 하는데 신호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제임스 길리간(James Gilligan)의 제안에서 얻는 함축적 의미를 살펴보면 감정은 사적인 감정이기보다는 사회적 감정으로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적 상태에 있는지를 신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임스 길리간(James Gilligan)은 폭력이 일어나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조건으로서 하나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은 마음이다. 수치심을 느끼면 사회적 요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숨기고 싶어진다. 공격성은 수치심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폭력이 일어나는 다른 하나의 조건은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비폭력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굴복시켜서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폭력적 수단만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길리간이 제시하는 폭력이 일어나는 마지막 조건은 폭력적 충동을 제어해주는 정서적 역량(예: 사랑, 죄책감, 두려움)의 결핍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은 사회적응력의 기초역량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의 부족은 폭력을 포함한 충동적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게 한다.¹³⁾ 길리간이 제시하였듯이

13) James Gilligan, *Violence: Reflections on Our Deadliest Epidemic*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0), pp. 111-113.

수치심 자체가 폭력을 야기하기보다는 수치심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회적 현실 때문에 폭력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감이 반드시 유대와 협력을 가능하게하고 수치심은 소외와 분열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 감정으로써 자신감과 수치심은 개인과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적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예방적 신호를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은 관계적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어떻게 갈등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분열과 소외보다는 유대감과 협력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IV. 갈등과 유대감과 협력이 공존하는 사회를 향하여

페미니스트 인류학자 이리가레(Luce Irigaray)가 논하는 ‘미메시스’와 ‘두입술’에 의지하여 김화영은 평화는 동일시의 공존이 아니라 다름의 공존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단지 남성의 반사경(specular)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침묵, 수동성, 약함, 무기력은 여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다. 김화영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동일시의 공존이 아니라 다름의 공존이 가능케 하기 위해 이리가레의 ‘미메시스’와 ‘두입술’을 전략적 저항으로 제시한다.¹⁴⁾

필자는 김화영의 논문에서 나타난 동일시와 저항이 억압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억압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성은 동일시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시도한다. 동일시는 침묵, 수동성, 약함, 무기력으로 완성된다. 동일시를 통해 동조하거나 동화되기를 실패하거나 동일시를 거부하고자 할 때 대체수단은 저항이다. 저항은 억압하는 사회로부터 단절과 고립이 될 수 있다. 김화영은 동일시 또는 저항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페미니스트 저항인 ‘미메시스’와 ‘두입술’을 제시한다.

김화영의 제안은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목회상담학자로서 필자는 동일시 또는 저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억압적인 사회’라는 사회적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억압된 사회에서는 억압의 심리학이 하수인의 역할을 한다. 억압적인 사회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변호하기 위해 적절한 심리학이 필요하다. 캐롤 워킨스 알리(Carroll Watkins Ali)는 억압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억압의 심리학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4) 김화영, 「페미니스트평화: 침묵하는 자에게 코레(Kore)의 복원가로」『한국기독교신학논총』 76 (한국기독교학회, 2011), 230-235쪽.

인종차별은 (이원론적 사고와 계급주의적 사고를 지닌 백인우월적인 사람이 지니는) 인종에 대한 태도 안에 만들어져서 흑인에게 투사되는 부정적 심리적 기능의 결과이다. 부정적 심리적 기능은 예를 들어 열등감, 불안, 죄책감, 분노, 적대감의 내재화된 감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전통적인 심리학은 흑인에게는 ‘억압의 심리학’이었다.¹⁵⁾

억압적인 사회에서 지배층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층에게 열등감, 불안, 적대감, 분노의 감정을 투사하여 이 감정들이 피지배층만이 느끼는 감정으로 결정한다. 피지배층은 억압적인 사회일지라도 동화되고 싶어서 열등감, 죄책감, 분노 등을 자신의 감정으로 내재화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들이 성소수자, 외국인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만이 느끼는 사적인 감정(private emotion)으로 정해진다. 결국에 감정은 개인이 느끼고 소유하는 감정으로 일반화되어서 인식하게 된다. 개인이 느끼고 소유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감정의 책임이 있다. 열등감이나 분노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고 감정표현의 결과도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감정을 개인이 느끼고 소유하는 것으로 일반화하면 감정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감정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가족이나 국가에서는 소외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인에게 감정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개인을 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다. 소외(alienation)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자아상실(engulfment)과 고립(isolation)이다. 자아상실에서는 개인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다. 행동은 개인성을 버리고 충성과 동조로 나타난다. 고립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다. 충성을 버리고 개인성을 지키려고 행동한다. 자아상실과 고립 양쪽 모두 자아와 소통의 병리적 현상을 초래한다.¹⁶⁾

감정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태를 알리는 기능을 하는 사회적 감정이라고 인식하면 갈등 속에서도 유대감과 협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감정이 사회적 감정으로서 기능을 하게하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감정이 소통되는 사회적 여건이 중요하다. 감정이 소통되는 사회적 여건이란 무엇인가? 마가렛 크라크(Margaret Clark)와 이안 브리세트(Ian Brissette)는 공동체적인 관계(communal relationship)에서 감정 표현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적 관계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필요에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관계보다도 공동체적 관계에서 감정표현은

15) Carroll Watkins Ali, *Survival and Liberation* (San Francisco: Chalice Press, 1999), p. 78.

16) Thomas Scheff and Suzanne Retzinger, 앞의 책, p. 170.

소통에 더 중요하다.¹⁷⁾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크라크와 브리세트의 주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함축적 의미는 상호간에 책임이 요구되는 공동체적 관계가 감정이 소통되는 사회적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면서 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게 된다. 성인이 될수록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일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슬픔, 분노, 기쁨)을 충동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와 부모사이의 관계가 역기능적일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자기감정을 충동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역기능적일 수 있다.¹⁸⁾ 부모가 전화 통화하고 있을 때 두 세 살 어린아이가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열다섯 살 청소년이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성인이 되면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타인의 상태와 필요를 알아차리는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감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건은 공동체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공동체적 관계는 타인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감정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관계이다. 억압적인 관계에서는 상호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감정을 소통하기가 어렵다. 억압적인 관계에서는 동조를 위해 사회적 강자가 전가한 감정을 사회적 약자가 내재화하는 행위만 일어날 뿐이다. 그러나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상호간에 전제되기 때문에 타인의 상태를 알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감정이 더 활발히 교류된다. 또한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상호간에 전제되어서 타인을 이해하도록 돕는 감정이 활발하게 교류할 뿐 아니라 유대감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기능을 한다. 감정은 분열과 소외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상호적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체적 관계에서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호간의 상태를 소통하기 때문에 유대감과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적 관계에 있는 구성원들도 갈등을 한다. 갈등을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상태가 상호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갈등이 가능하고, 갈등을 통해 유대감과 협력이 가능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목회상담학자 래리 그래함(Larry Kent Graham)의 주장에 의지하여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래함은 치료하고 돌보려는 공동체적 노력은 성취와 성장의 욕구뿐 아니라 생존하려는 의지에도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생존하기 위한 이러한 공동체적 노력은 매우 도덕적이라고 그래함은 말하면서 도덕적 행동, 즉 도덕적인 삶은 교

17) Nico Frijda, Antony Manstead, and Sacha Bem, *Emotions and Belief*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215.

18) 위의 책, p. 222.

회모임, 찻집에서 대화, 예배, 소풍, 등의 매우 일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¹⁹⁾ 도덕적인 삶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삶속에서 도덕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 즉 배려와 사랑보다는 소외와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적 노력을 위해 그레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화는 진단한다. 협력은 치료한다. 애도는 자유하게 한다. 기억은 동기를 일으킨다.”²⁰⁾ 그레함이 주장하는 ‘대화,’ ‘협력,’ ‘애도,’ ‘기억’은 서로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공동체적 행위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화만 있다면 진단은 가능하지만, 애도와 기억이 없으므로 상호간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없다. 만일에 기억과 협력은 있어서 미래를 향한 동기부여와 치료의 행위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지만 대화가 없다면 서로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구체화시킬 수 없고 어느 방향으로 동기부여할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 협력, 애도, 기억은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지속적 행위이어야 한다.

V. 결론

다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갈등이 악(惡)은 아니라는 전제아래 갈등 속에서 감정이 유대와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다름으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 분노, 수치심, 자신감 같은 감정이 소외를 유발하기도 하고 유대감을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서로의 상태를 알아차려주는 기능을 하는 감정이 소통이 되는 사회적 조건에서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감과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논하였다. 그러므로 갈등은 악(惡)이 아닐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롭게 하는 요인도 아니다. 오히려 갈등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상태와 필요를 소통하는 기능을 하는 감정이 활발하게 되도록 돕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할지를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전이고 과제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활발하게 소통되고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시키는 관계의 유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즉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행동으로서 ‘대화,’ ‘협력,’ ‘애도,’ ‘기억’을 제시하였다. 공동체적 관계만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강화를 시킬 수는 없다. 제시된 네 가지 행동이 어

19) Larry Kent Graham, *Moral Injury: Restoring Wounded Soul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7), pp. 154-155.

20) 위의 책, p. 110.

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지는 문화와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공동체적 관계를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대가 강화되는 관계를 위한 대안으로 수용하지만 문화와 지역적 상황에 적절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정생. 「도모꼬: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2」.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 집』. 과주: 보리, 2010.
- 김화영. 「페미니스트평화: 침묵하는 자에게 코레(Kore)의 복원가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76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11).
- 박형신,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과주: 한길사, 2015.
- Ali, Carroll Watkins. *Survival and Liberation*. San Francisco: Chalice Press, 1999.
- Cicchetti, Dante, Brian Ackerman, Carroll Izard.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995).
- Denham, Susanne, Marcia McKinley, Elizabeth Couchoud, and Robert Holt.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1990).
- Dewey, John. "The theory of emotion: (1) emotional attitudes." *The Psychological Review*, 1, no.6(1894).
- Feuereisen, Patti and Corline Pincus. *Invisible Girls The Truth About Sexual Abuse*. 이배근, 문영희 옮김. 『인비저블 걸: 성적학대에 관한 진실』 서울: 홍익재, 2006.
- Frijda, Nico, Antony Manstead, and Sacha Bem. *Emotions and Belief*.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Gilligan, James. *Violence: Reflections on Our Deadliest Epidemic*.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0.
- Graham, Larry Kent Graham. *Moral Injury: Restoring Wounded Soul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7.
- Izard, Carroll, Sarah Fine, David Schultz, Allison Mostow, Brian Ackerman, and Eric Youngstrom. "Emotion knowledge as a predictor of social behavior and

- academic competence in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science*, 12(2001).
- Nussbaum, Martha.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Law*.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Scheff, Thomas and Suzanne Retzinger. *Emotions and Violence*. Lincoln, NE: iUniverse, 2001.
- West, Cornel. *Race Matters*. Boston: Beacon Press, 1993.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13일, 심사일: 2018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4일

연구자 소개: 이희철

- ① 전공: 목회상담학 / 소속: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 ② 관심영역: 사회심리학, 트라우마, 정서와 신앙
 - ③ 주요논저: 『앵그리 크리스천』(번역), 『The Changing Faces of Shame: Culture, Therapy and Pastoral Theology』, 『현대목회상담학자연구』(공저)
 - ④ E-mail: jacob4jx@stu.ac.kr
-

Abstract

A Constructive Community and Pastoral Counseling: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nflict

Lee, Hee-Cheol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Conflict is not simply a social problem that a community should avoid. Conflict is rather an existential reality that demands communal responsibility. This is a premise of this article in which it attempts to explore how communal cooperation and social bond can be maintained in the midst of intense conflict. 'Difference' should not lead to 'discrimination.' 'Difference' is a social reality in which conflict is inevitable and becomes existential experience in a community. This article is a social psychological attempt to explore how social bond and cooperation are possible among community members in spite of conflictual situations. A community, that promotes mutual care and social bond, does not unacknowledge and avoid conflict. It rather confronts conflict and continues to maintain communal relationship in which mutual interaction is possible in spite of conflict. In communal relationship, emotions are mutually communicated rather than suppressed or distorted. Emotion is not a personal feeling that each individual should be responsible all the time. Emotion rather functions to help people to acknowledge each other'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tus. Therefore, emotions such as rage, shame, and confidence should not be accounted to be simply either negative or positive. They are rather signals to help to acknowledge relational states and to be obligated to response to each other. This article relies upon Larry Ken Graham's systemic approach in order to find out a therapeutic way to promote a communal relationship that communicates openly every emotion rather than distorts or suppresses emotions in the midst of conflict. Four therapeutic ways are suggested: dialogue, collaboration, mourning, and remembrance. These four ways are actions to be taken together. They should not be taken separately. In order to maintain communal relationship, these actions always should be promoted together.

Key words: conflict, dialogue, collaboration, mourning, remembrance, community, social psychology